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2021학년도 제3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21. 09. 17.(금) 11:00 ~ 12:0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 평 의 원 (9명) : 이광은, 권원순, 박용구, 윤호숙, 김희진, 정현혁, 조기석, 김수진, 이영만
   - ○ 불　　참(2명) : 이창준, 유용일
   - ○ 회의지원(1명) : 엄종섭
   - ○ 학　　교(1명) : 박헌일 기획처장

4. 회의 안건
   -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 정현혁 의장이 2021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정현혁 의장이 2021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함.

대 학 평 의 원 회								

○ 윤호숙 평의원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다문화·심리상담학과 교과목, 학과장 담당 교과목, 타 사이버대학 관련 학과 입시 현황, 심리상담학과 실습 관련 기준 등을 요청함. 또한 다문화·심리상담학과를 신설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학과명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신설 당시 취지, 커리큘럼, 추진 경과 등도 추가로 요청함.

○ 정현혁 의장이 규정에 따라 공문으로 안건 관련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드렸으며,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은 참석이 어렵고 기획처장이 회의 참석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함.

(11시 21분 박헌일 기획처장 입장)

○ 정현혁 의장이 기획처장에 평의원들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요청에 따른 학과명 변경 관련 안건인데 해당 학과장님이 어떤 사유로 불참하신 건지, 회의자료만으로는 학과명칭 변경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임을 전달한 후 설명을 요청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문 내용 그대로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에 전달하였으며 불참의사만 전달받고 불참사유는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변함.

○ 이광은 평의원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작성한 회의자료(다문화·심리상담학과 학과명 변경 및 전공 세분화(안))을 보면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심리상담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다문화 관련 커리큘럼은 다 없애는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로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만을 하는 학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학과명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당 학과에서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 권원순 평의원이 타 대학 사례, 사회 수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심리상담학과보다는 상담심리학과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어 해당 학과장에 문의 결과 현재 다문화·심리상담학과 교과목 중 상담 관련 교과목 개수가 적어 상담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 김수진 평의원이 학과명에서만 다문화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에는 다문화 과정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왜 학과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힘.

○ 박용구 평의원이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학과명칭 관련하여 상담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해당 학과장에 전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음을 설명함.

○ 이광은 평의원이 학과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학과개요, 교육목표, 커리큘럼 등이 전부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과 사유로 학과명칭에서 다문화를 제외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해야 함을 강조함.

○ 박용구 평의원이 회의자료로만 판단해 본다면 심리상담학과보다 심리·다문화상담학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권원순 평의원이 학과명칭을 정해놓고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와 학과 운영 방향에 맞춰서 학과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임.

○ 윤호숙 평의원이 우리 대학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학부(과)를 개편하게 되면 타 학부(과)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김희진 평의원이 작년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된 역량진단 평가 당시 학부(과) 개편 과정에서 대학구성원 대상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는지가 중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한 후, 다문화·심리상담학과 학과명칭 변경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기석 평의원이 입학시에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다문화 혹은 심리학 등 학생 개인별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를 파악한 후 학과명칭 변경 과정에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김수진 평의원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으로 학과명칭 변경(안)을 상정한 학교당국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해당 안건은 다문화·심리상담학과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대학에서는 학과의 요청을 받아들여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함.

○ 이영만 평의원이 학과명을 변경하는데 있어 학과 비전,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수요 변화, 추가 기회 등을 해당 학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재하신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언급함. 또한, 학과명칭 변경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지난 9월 8일부터 홈페이지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학과에서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9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까지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윤호숙 평의원이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안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학평의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함.

○ 엄종섭 기획팀원이 학칙 개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학과명칭 변경 관련 안건을 10월 7일에 예정되어 있는 법인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심의·의결을 받아야 변경된 학과명칭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입시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윤호숙 평의원이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사회 일정에 쫓겨 심의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11시 48분 박헌일 기획처장 퇴장)

○ 김희진 평의원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에서 진행한 것은 의견수렴 방식으로 한계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1) 학과명칭 현행유지, 2) 심리상담학과로 변경 3) 그 외 의견 등을 설문조사 문항 예시로 제안함.

○ 정현혁 의장이 회의자료 내용이 안건 심의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 출석 및 설명 없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평의원 의견이 많은 상황을 설명함. 이후 평의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건 심의 진행 여부에 대한 표결을 제안하였고 평의원들이 숙의한 후 정현혁 의장, 윤호숙 평의원, 김희진 평의원, 조기석 평의원, 김수진 평의원, 이영만 평의원이 추후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 출석하에 다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박용구 평의원은 현재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권원순 평의원은 현재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추가로 상담심리학과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광은 평의원은 기권함.

○ 표결 결과에 따라 의장 및 평의원이 숙의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의 참석 및 설명을 전제로 9월 27일(월)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함.

❑ 다문화·심리상담학과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1) 학과명칭 현행유지, 2) 학과명칭 심리상담학과로 변경 3) 그 외 의견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추가로 요청함.

❑ 다문화·심리상담학과장 불참시에는 심의 진행 불가로 하기로 함.

7. 폐회선언

○ 정현혁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2021년 9월 17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정 현 혁	(印)
평 의 원	이 광 은	(印)
평 의 원	권 원 순	(印)
평 의 원	박 용 구	(印)
평 의 원	윤 호 숙	(印)
평 의 원	김 희 진	(印)
평 의 원	조 기 석	(印)
평 의 원	김 수 진	(印)
평 의 원	이 영 만	(印)